

임태균 전북대 교수, 제25대 회계정책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임태균 교수(경상대학장, 회계학과)가 제25대 한국회계정책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가는 1년이다. 임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학회를 이끌게 된 데 대해 영광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학회와 회원 모두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한밭대와 10월 전북대에서 각각 춘·추계 학술대회와 함께 통합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교수는 “지난 40년간 학회의 위상을 높여온 전 임 회장들의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회계정책학회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학회 회원들이 기업, 회계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회계정책학회는 1985년 창립된 이래 회계학 연구와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수 4명, 시설확충기금 600만원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9일 총장실에서 도서관 시설확충기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대 최병연 교수(초등교육과, IB교육연구센터장)가 300만원을 정현주 교수(음악교육과, 인성교육원장·인권·상담센터장), 이민선 교수(미술교육과), 신윤경 교수(국어교육과)가 각각 100만원씩 6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대학발전 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대학 발전과 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해 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5년 완공 예정인 새로운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개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직무연계형 자격증 특별반 운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6~8일 직무연계형 자격증 특별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특별반은 이차전지의 제조와 성능평가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이차전지 원리, 제조 및 성능평가 실무기술 습득 등 이차전지제조성능평가사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이뤄졌다.

직무 연계형 자격증 특별반으로 운영된 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스마트전자자동차과에서 학생 9명과 교수 3명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사매면, 희망나눔캠페인 동참 잇따라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하며, 현재까지 사매면에서 모금된 금액은 29건 67만원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연말연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총 493만원을 전달하며 소중함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사매면 발전협의회(회장 김주환) 50만원, 이오농장·제이농장에서 각각 50만원, 모 마을 이장의 경우 이장수당을 모아 개인적으로 50만원을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9회 전북 경제대상 시상식 개최

대상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 본상 신한방직 문형태 대표 · 선진공업 김상용 대표 수상

8일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5 신년 인사회’와 함께 개최된 ‘제19회 전북 경제대상 시상식’에서 화학제품 제조 및 2차 전지용 황화리튬 생산 전문가인 (주)정석케미칼(대표 김용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상 기업 부문에는 (주) 신한방직 (대표 문형태)이, 본상 경영인 부문에는 김상용 선진공업(주)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전북 경제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는 1990년 회사 설립 초기부터 우레탄 방수 도료와 방수제를 주로 생산하여 왔으며, 꾸준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주요 생산 제품 및 기술로는 방수 및 바닥재 도료, 증방식 도료, 도로용 도료, 공업용 및 특수 도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도료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자동차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관련 황화 리튬 양산설비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 전기차와 태양광 저장시스템 등 배터리 기술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

활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원주군청으로부터 산업·노동 부분 군민의 장에 선정되었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뽑히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 도로 개발에 집중해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수출 실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혀가는 기업이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2022년 전북도민일보 주최 친절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금 200만 원 전액을 불우한 이웃에게 기증했으며, 이번에도 시상식장에서 상금 500만 원 전액을 소외된 이웃에게 기증하겠다고 밝혀 청중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이제 회사가 전북특별자치도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서 주목받았다.

이번에 전북경제대상 기업 부문 본상을 수상하게 된 (주) 신한방직 문형태 대표는 원주군 이사면에 위치한 섬유 전문기업으로 원사와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1972년 신한방이라는 내의 공장을 만든 것이 모태이며, 2018년 (주)신한방 방직사업부 폐업 이후 사원들의 의지와 자본 참여를 통해 설립된 종업원 지주회사이다. 면사, 면혼방사, 화섬사(나면, 방면, 발면) 및 텐셀, 수피마 등 고품질의 친환경섬유 생산에 주력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효율적 생산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에서 ‘기업 이익의 10%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섬유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문형태 신한방직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신한방을 폐업한 후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 다시 일으켜 세운 회사의 창업스토리를 잘 이해해주시고 기업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을 알고 응원과 격려 차원에서 이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전북 경제대상 경영인 부문 본상을 수상한 김상용 선진공업(주) 대표이사는 1998년 3월 1일 원주군 상관면에 금속 가구제조 전문기업을 설립해 안정적인 경영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교구 제조 전문기업이다.

오랫동안 교구용 가구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력 끝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교구용 책걸상을 제조해 학생 성장에 맞춘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가구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포함, 단체표준 인증 Q마크 인증 환경마크 인증, 친환경 상품진흥원 표창장 등을 보유 중이다.

특히, 고품질의 친환경제품 개발 공로로 친환경 상품진흥원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직무능력을 발휘해 내고 있어 주목받는 기업이다.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식사 봉사, 어려운 이웃돕기 등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안 기업이다.

특히, 상공회의소 신규 회원사 배가운동에 동참하여 2024년 100여 개 신규 회원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지역 내 상공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목받았다.

김상용 대표이사는 고령임에도 수상소감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더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삶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본상은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오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최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 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은 가정 내 보호자와 아동이 상호 존중하는 양육 태도 및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민규 의장은 심택섭 고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성주 김제시장과 박원 정읍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 생필품 꾸러미 50세트 기부

남원시는 지난 8일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에서 생필품 꾸러미 50세트(환가액 500만원)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남원관내 소상공인(130명)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설립한 단체로,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현금으로 기부를 해 왔으나 이번 기부는 라면, 김, 화장지,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50세트를 준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기사협회 전북, 순창군에 성금 300만원 기탁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가 9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신년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매년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수 회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집중살핌 추진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2025년 새해에는 보다 촘촘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용행정으로 취약계층 집중살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동에서는 고령의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매일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적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자체 시책사업 연계, 건강상담, 이웃돕기 현물지원 등 여러 방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설 명절에도 집중 살핌을 병행 촘촘하고 누수 없는 돌봄 행정을 추진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부 확인 정서적지지, 한파대비 취약계층 전열기구 안전 점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민음병원 조양동 병원장, 김제시 고향사랑 제1호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9일 2025년 첫 번째로 조양동 민음병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민음병원은 김제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개원 당시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김제시 달빛아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최적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 병원장은 전북아카페봉사단 이사장 김제시의사회 및 전라북도노사회 이웃사랑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며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등에게 꾸준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조 병원장은 “김제시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김제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민음병원 조양동 병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의성한방병원 한주석 원장, 순창군에 고향사랑 500만원 등 기탁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이 최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재래김과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순창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육천요양원에 한약재를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을 백산리 출신인 한 원장은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년 육천요양원에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한약재를 기탁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재래김과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지속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 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